



산업통상자원부

<http://www.motie.go.kr>

보 도 자 료

힘내라-
대국정복
힘내라-
대한민국

2020년 3월 2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 22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3. 20.(금)	담당부서	신에너지산업과
담당과장	최연우 과장(044-203-5390)	담당자	김찬주 주무관(044-203-5392)

한국형 수소버스 충전소 확보...실증사업 추진

- 다양한 형태 충전소 구축운영, 부품 국산화를 80%까지 향상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가 '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' 2020년 신규 공모 계획을 3월 23일 공고한다.

□ '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'은 수소경제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·운영하여, 한국형 수소충전소 모델 확보와 부품 국산화를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국비 100억원 포함 총 1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.

① 이 사업을 통해 350기압과 700기압의 충전설비를 조합하여 2가지 형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에너지소비량, 버스노선 운영패턴 등을 실증하여 최적화된 수소버스 충전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.

* 수소버스용 충전소는 현재 세계적으로 충전압력 350기압(유럽, 미국, 중국), 700기압(한국, 일본) 2종류로 운영중

-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수소 승용차에 적합하도록 700기압 단일 충전 방식과 소용량* 충전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, 버스 노선 길이, 차량 운행 대수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소버스를 충전하기에는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**가 있다.

* 설비 1개당 수소충전량 : (수소 승용차) 약 25kg/h, (수소 버스) 약 50kg/h

** 350기압 설비는 700기압 설비 대비 ①빠른 충전, ②높은 국산화율, ③저렴한 구축 비용(75% 수준)등의 장점이 있으나 100% 충전이 불가능 → 최적 혼합 모델 필요

②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수소버스충전소 부품의 국산화율이 현재 30% 수준(원가 기준)에서 80%까지 높아질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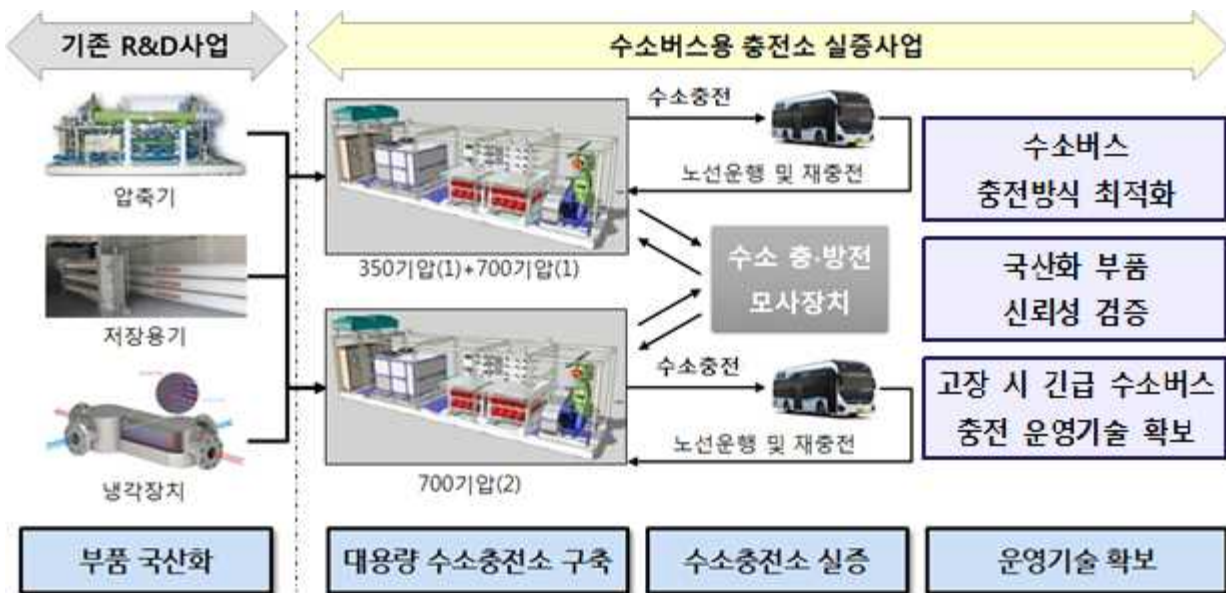
- 이를 위해 이 사업에서는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부품을 사용, 직접 실증을 통한 성능 신뢰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다.

□ 향후 지속적으로 수소버스와 수소버스 충전소가 보급*됨에 따라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부품과 설비는 점진적으로 수소버스 충전소 보급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.

* '20년 보급계획(누적, 대/기) : (수소버스) 195, (수소버스충전소) 18

- 또한 산업부가 시행중인 '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('20.3.24 공고)'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.

<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개념(안) >



□ 이번 사업 공고는 3월 23(월)부터 산업부(www.motie.go.kr)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(www.kiat.or.kr) 홈페이지에 게재된다.

- 접수는 4월 22(수)까지이며, 5월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.